

우니 섬유 - 유럽·아시아·일본의 전시회에 적극 출품

우니 섬유(宇仁 纖維)는 2009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여러 텍스타일 전시회에 출품하고 있다. 9월 7~9일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텍스 월드(Tex World)를 비롯하여, 10월 7 ~ 9일에는 홍콩에서의 인터스토프 아시아 에센셜 가을(Interstoff Asia Essential Fall), 10월 20 ~ 23일에는 인터 텍스타일 상하이(Intertextile Shanghai)로 연달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인터스토프와 같은 날 개최되는 JFW-저팬 크리에이션(JC)에 출품하고, 그 다음 주인 15~16일에도 도쿄에서 우니 섬유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개별전(個別展)을 22~23에는 오사카 본사에서 개별전을 개최하였다.

우니 섬유는 창업 이래로 업적을 계속 늘려왔는데, 그런대로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전시회에 출품해온 것이 크게 보탬이 되었다. 우니 사장은 “역사가 짧은 우리 회사는 전시회에 출품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왔다.”는 인식으로, 실제로 JC(Japan Creation)나 개별전은 언제나 전시장에 관람자들이 넘쳐흐를 정도의 성황을 보여 왔다.

2009년 8월기 판매고는 전기(前期 : 7월기)와 비교하여 5% 증가하였는데 세계적으로 소비가 잘 안 되고 외환 시세가 역풍이 되고 있어, 전체 판매의 5%를 차지하는 순 수출은 전기와 비교하면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